

움직이는 국가(行國), 요나라 오경(遼五京)의 건설과 불탑 건립

성서영

요(遼)는 916년 태조 아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요 상경(上京), 즉 현재 내몽고 파림좌기 임동진(內蒙古 巴林右旗 林東鎮)을 도읍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요 초기부터 황실이 적극적으로 불교를 수용하고 장려하여, 당시 동아시아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불교문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 전역에 남아 있는 100여좌의 불탑입니다. 대다수의 불탑에는 역대 불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대형의 부조상이 배치되어 있으며, 일부 불탑 내에서는 대량의 사리장엄구와 공양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불탑의 건축 형식, 부조상의 내용, 배치 구조와 의미, 출토 유물들은 이제껏 학계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불탑 자체의 문제에서 벗어나 당시 불탑의 건립이 도시 건설과는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었는지 보다 넓은 시야에서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현존 불탑의 분포를 살펴보면, 요대 불탑은 요나라 오경, 즉 5개의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헌 기록과 고고학 발굴 성과를 종합해보면, 요나라 오경은 건국 초기 건설된 수도 상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당 기간 후에 특정 목적으로 건설 혹은 승격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요대 불탑의 건립은 도시 건설과 명확하게 연동되어 있어 논의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건설은 요 황실의 특수한 습속인 날발(捺鉢)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어, 이러한 시도는 요나라의 도시, 불교문화는 물론 요 황실의 습속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영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자 목원대학교 조형콘텐츠학부 겸임교수이다. 2021년 중국 청화대학교에서 <요나라 종교 염원과 국가 정통: 요 경주백탑 연구(遼國宗教意願與國家正統: 遼慶州白塔研究)>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10-13세기 송·요·금·원·고려의 불교 미술 및 문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遼慶州白塔 천궁 출토 鳳銜珠銀鑲金法舍利塔의 조상 연구」, 「경주백탑 초층 탑신 鬼箭을 든 신장상 연구」, 「조양북탑 탑부조상의 도상 연구」, 「遼代白衣觀音造像研究」, 「遼代八大靈塔圖像特征與出現背景」 등이 있다.

Date & Time: April 25, 2023. 12:00-13:00

Place: SNUAC Room 406 (4th Floor)